

삼성토탈, 대산공장 무재해 5배수 달성

삼성토탈은 대산공장이 1월10일 오후 4시를 기해 무재해 5배수인 600만인시를 돌파해 노동부로부터 1월 <무재해 5배수> 달성 인증패를 받는다고 1월11일 밝혔다.

삼성토탈은 “대산공장은 15개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콤비나트라는 점에서 무재해 5배수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”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.

무재해 5배수 달성은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5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산업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<화학저널 2007/01/11>